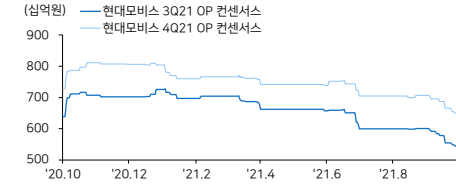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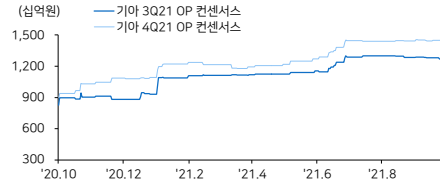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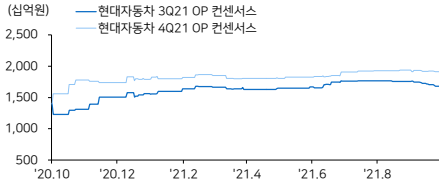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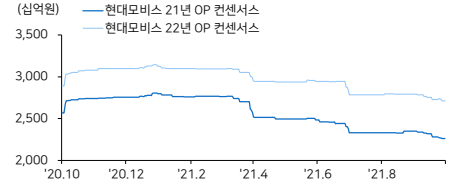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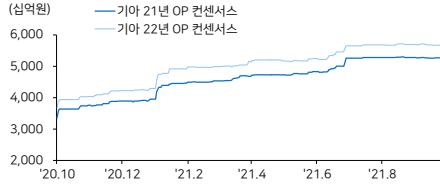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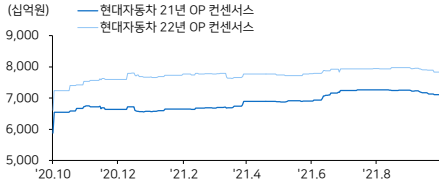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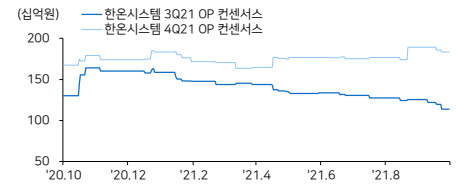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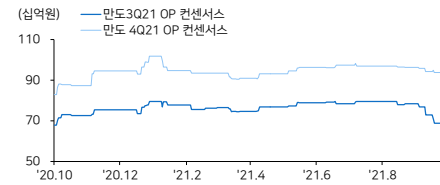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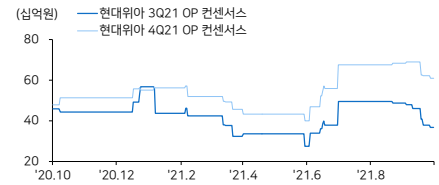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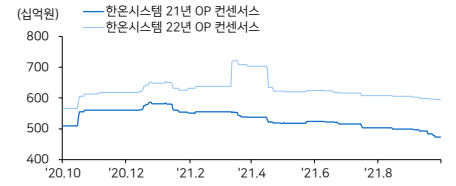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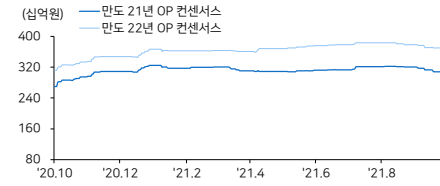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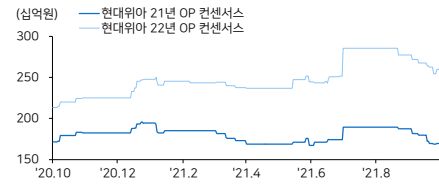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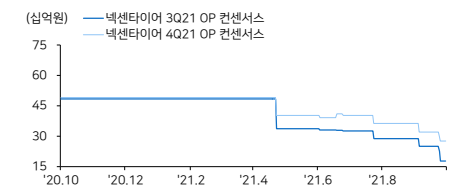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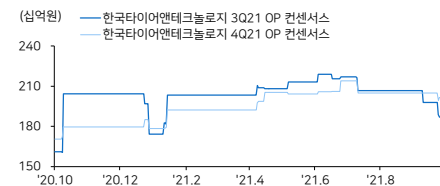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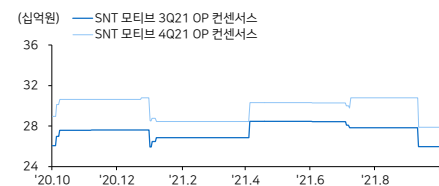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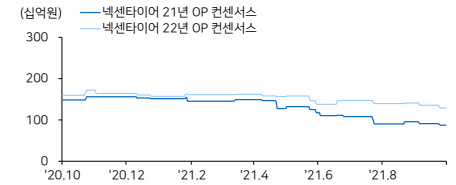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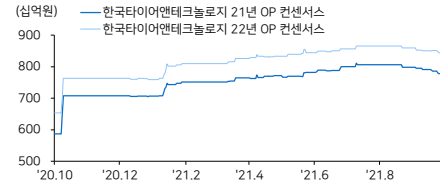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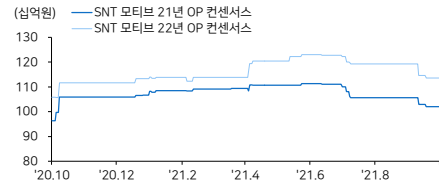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내년부터 印尼서 전기차 생산... "EV 생태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현대차는 '19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 인도 델타마스 공단에 연간 2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설립 중, 내년 초 본격 가동 예정.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하여 10GWh 규모의 배터리셀을 '24년 상반기부터 양산 예정.

<https://bit.ly/2XNMVY8>

제네시스 '전기차 G80', 내년 G20 발리 정상회의 공식 VIP 차량 선정 (뉴시스)

제네시스의 첫 번째 고급 대형 전동화 세단 'G80 EV'가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발리 정상회의'에 의전차량으로 제정됨.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G80 전동화 모델을 활용하여 행사 일정을 소화하게 될 예정.

<https://bit.ly/3vLSSfm>

"전기차 450만대" 정부 급가속... 국내 자동차업계는 '발등의 불' (조선일보)

'30년 오일가스 감축 목표치를 기존 26.3%에서 40%로 높여 '30년 정부의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치도 기존 385만대에서 450만대로 상향되었으나, 국내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Capa는 '30년까지 최대 300만대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https://bit.ly/3bG6UzKN>

허츠, 테슬라 전기차 10만대 주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렌털카 업체 허츠 글로벌 홀딩스가 25일(현지시간) 테슬라 전기차 10만대를 주문, 내년 말까지 인도받을 계획. 구체적인 계약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42~50억 달러 규모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렌탈사업을 위한 차종 충전소 계획도 밝힘

<https://bit.ly/3bG6UzKN>

현대차, 브라질 롭 보인아... 승용 점유율 첫 2위 (디지털타임스)

현대차는 지난달 브라질 현지서 승용부문 1만4,197대를 판매해 점유율 13.02%를 차지함. 폭스바겐(17.23%)에 이은 2위이며 9월까지 누적 점유율은 11.84%로 폭스바겐, 피아트에 이어 3위. 승용 부문에서는 점유율 4위를 차지함.

<https://bit.ly/2XHED86>

물류난·반도체난·원자재값 상승... 타이어업계 3분기 실적 먹구름 (조선비즈)

국내 타이어 3사가 물류 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물류비와 천연고무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됨.

<https://bit.ly/3Chc4DR>

포르쉐부터 테슬라·벤츠... 현대차까지... 완성차 R&D 기지 된 중국 (조선비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퉀 중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확대하면서 중국이 미래차 핵심 기지로 성장 중. 최근 벤츠는 베이징에, 현대차는 상하이에 R&D 센터를 열었고, 테슬라 역시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할 예정.

<https://bit.ly/3vKVVZ7>

일본 머스크 '스타링크', 보타폰 협력 가능성 (THE GURU)

일본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유럽 최대 통신사 보타폰과 협력한다는 전망. 위성 인터넷 사업부인 '스타링크'가 영국에서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보타폰도 스타링크와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

<https://bit.ly/2Zmeh2Z>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